

경향신문

형태보다 관계...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각하다

도재기 선임기자jaekee@kyunghyang.com
입력 : 2020.06.09 20:29



조각가 정서영의 작품전 '공기를 두드려서'가 바라캣 컨템포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전시 전경 일부. 바라캣 컨템포러리 제공

조각의 본질 묻고 답하는 작품들
작품·시간·공간·관람객의 관계가
빛어내는 또 다른 세계를 추구
통념적으로 굳어진 것들에 균열

작품명 '0번' '1번'은 철사에 묶인 파이프 모양들 중 한 개가 빠죽 튀어나오거나, 가운데가 부러진 형태가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순간을 포착해 알루미늄 주물로 조각했다. 목재 수납장에 비스듬히 걸린 옷걸이와 옷걸이에 걸린 넓은 천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룬 '무제'(1994)는 긴장감을 안긴다. 평범한 사물들이 어떻게 조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전시장 높은 벽에 비정형 덩어리와 직사각형이 엇비슷하게 걸렸다. '돌과 점'이다. "저게 뭐지?" 하던 관람객은 작품명을 보고는 다시 "도대체 돌과 점이 무슨 관계지?" 하며 자꾸 쳐다본다. 달을 닮은 4개의 덩어리와 사진들로 구성된 '오래된 문제', 열쇠와 자석·철사로 구성된 '열쇠' 등도 마찬가지다. 시각적 형태가 두드러지는 '0번' '1번' '무제'와 달리 쉽게 와닿지 않는다. 형태보다 낯선 조합으로 파생되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영역·세계를 '조각'했기 때문이다.

작품 '피, 살, 뼈'는 'BLOOD FLESH BONE'이란 글자를 새긴 둥근 판과 기둥, 구부러진 나뭇가지 등으로 구성됐다. 글자를 인지하는 순간 관람객은 피·살·뼈란 언어에 매몰되기 쉽고, 그것들이 어떻게 형상화됐는지 찾아내려 한다. 작가는 피·살·뼈라는 생명유지의 핵심 요소를 형상화하기보다 오히려 그것들의 안내판을 조각했다. 피·살·뼈란 언어의 조각이자, 세심한 작업 과정·시간을 담은 조각이다.

조각가 정서영(56)의 작품전 ‘공기를 두드려서’가 바라캇 컨템포러리(서울 삼청로길)에서 열리고 있다. 국내외에서 주목받아온 작가가 신작을 중심으로 조각과 영상, 새롭게 도전한 도자 텍스트 드로잉 등 20여점을 선보인다.

정 작가의 작품은 흔히 ‘시(詩) 같은 조각’으로 불린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해석되지 않아 “어렵다”는 뜻이자, 사유를 이끌어내 웅숭깊은 울림을 준다는 의미다. 조각의 본질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 ‘조각을 조각’하는 작가는 “형(태)보다 관계를 조각하는 데 관심을 둔다”고 말한다. 한 조각품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조각품과 조각품, 조각품과 공간·시간, 조각품과 관람객 등의 관계가 빛어내는 보이지 않는 영역,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전통적·통상적 조각과 달리 형상보다 내용을 생각하게 되고, 개념미술·설치미술처럼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든다. 작가는 “일반적·통상적인 스토리텔링 방법론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만든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늘 다른 방법론을 찾으려 애쓴다”고 말한다. 통념적으로 굳어지거나 고정되고 규정된 것들에 균열을 내 더 자유로운 인식, 상상력을 강조하는 셈이다.

실제 많은 작품들은 상상력, 감각을 한껏 자극한다. 평범한 호두를 이질적인 색깔·질감 등으로 플라스틱 캐스팅하고, 깔끔하지만 기능성은 떨어지는 장식장에 배치한 ‘호두*’ ‘호두**’ ‘호두***’, 호두 한 알을 10분 25초 동안 관찰하는 2채널 영상 ‘세계’가 그렇다. ‘세계’는 한참 들여다보면 호두와 호두를 둘러싼 소리·빛·공기 등에까지 감각이 미치게 된다. 사운드 아티스트 류한길의 사운드가 “호두를 소리로 표현한다면 딱 이렇겠네” 할 정도로 점점 예민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또 누런 왁스 종이 속에 놓인 섯노란색 조형물인 ‘두 개’ 등도 마찬가지다.

10점의 도자 텍스트 드로잉, 작품 ‘같은 것’ 등은 개별 조각만을 감상할 수도 있지만 조각들을 둘러싼 상상력 확장을 통해 미지의 영역을 찾아낼 수도 있다. 종이같이 희고 얇은 도자판에 “유들유들한 덧셈” “우주로 날아갈 때는 코를 빼놓고 간다” 등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유약으로 쓰고 구운 도자 드로잉은 유약의 번짐 등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과장스러울 만큼 높은 좌대들 위에 놓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평소 사물을 깊게 오래 집중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작가의 작품전은 전시명처럼 공기를 두드려 보듯이 관람할 만하다. 7월5일까지.



정서영의 ‘두 개’(2020), 폴리우레탄 레진·왁스 종이, 32×26×24cm.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